

#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이선용\*

I. 머리말
II. 불화 복장과 『造像經』과의 관련성
III. 『造像經』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
IV.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
V. 범자와 진언을 통해 본 복장의 의미
VI. 맺음말

## I. 머리말

佛腹藏<sup>1</sup>이란 불보살상을 비롯한 불교와 관련된 여러 尊像<sup>2</sup>들을 전각 안에 봉안하기 전 像의 내부에 發願文, 喉鈴筒, 경전, 다라니 등을 安立<sup>3</sup>하는 의식이며, 점안의식과 함께 像이 佛로 완성되는데 필요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불복장의의식과 점안의식은 신앙과

\* 동국대학교 박사수료

1 佛腹藏은 중국에서 불탑이나 불상 내부 종교용품을 가리키는 말로 ‘裝藏’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納入品’으로 언급된 반면, 우리나라는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고려시대 發願文에서 ‘腹藏’이라 기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느 시기부터 ‘복장’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한국·중국·일본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2 불보살상을 비롯하여 사천왕상, 시왕상, 나한상 등 불교와 관련된 여러 尊像에서는 불복장이 발견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불복장 중 상당량이 불보살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존상들의 불복장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언급할 시 존상들의 명호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여러 像들을 언급하고자 할 때에는 불보살상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3 불상 안에 복장물을 ‘넣는다’라는 의미로 보통 安置, 또는 일본에서와 같이 納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1824년 유점사판 『造像經』 「喉鈴筒內安立次第」條와 「黃綯幅子內安立次第」조에서 ‘安立’이라는 용어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안립’은 ‘넣는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안치, 납입’ 대신 ‘안립’으로 사용하겠다.

예배의 중심인 불보살상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불교의식 중 하나이다.

불복장의식은 『造像經』<sup>4</sup>을 기본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상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복장물이 실제 여러 불보살상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불화 복장은 腹藏囊이나 후령통 등이 전해지고 있지만 불보살상의 복장물에 비하여 종류와 수량이 한정된 반면 안립 방법, 형식 등은 매우 다양하다. 『조상경』의 내용이 대부분 불보살상에 안립되는 복장물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어 불화 복장의 형식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조상경』은 각 복장물을 안립할 때마다 염송하는 진언과 함께 점안과 관련된 범자가 수록되었다. 이러한 범자와 진언은 실제 불화에서도 확인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불화를 설명하는데 범자의 有無 정도에 대한 현황만으로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sup> 따라서 본 고에서는 『조상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자와 진언의 내용을 토대로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불복장의식과 점안의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Ⅱ. 불화 복장과 『造像經』과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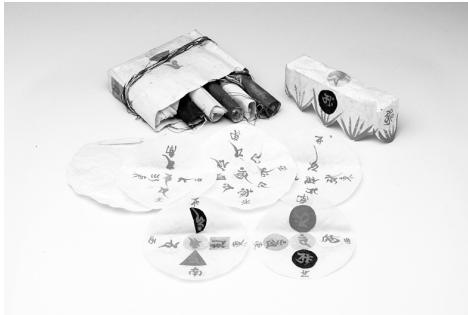
지금까지 확인된 불보살상의 복장은 대부분 발원문, 경전, 다라니, 복식, 직물 등 다양한 복장물이 확인되었지만 그 중심은 후령통이며, 형식은 일률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불화 복장에서도 후령통이 발견되지만 안립 방법에 있어 불보살상의 복장에 비해 다양하다.

『조상경』은 불화 복장과 관련하여 ‘塑像에는 圓筒을 사용하고 畫幀은 方筒을 사용한다’라고 기록<sup>6</sup>하고 있을 뿐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비록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후령통

<sup>4</sup> 『조상경』은 1575년 龍泉寺板을 비롯하여 1697년 楞伽寺板, 1720년 華莊寺板, 1746년 金龍寺板, 1824년 楡岾寺板, 그리고 조선 후기 필사본이 전래되고 있다.

<sup>5</sup> 불화 복장은 온양민속박물관,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계몽사, 1991); 수덕사 근역성보관,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수덕사 근역성보관, 2004) 등 일부 연구서와 전시도록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 이영숙, 「仙巖寺 掛佛과 腹藏囊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1호(한국문화사학회, 2004, 6); 이종수, 「靑銅腹藏囊의 新例-發願文 내용을 중심으로-」, 『미술자료』69호(국립중앙박물관, 2003) 등이 있다. 그리고 강영철, 「조선 후기 준제보살 연구-불교문헌과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회당학보』 제9집(회당학회, 2004, 6);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해인행, 2008); 김영덕,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陀羅尼法」, 『불교원전연구』12호(불교문화연구원, 2010, 6) 등 진언과 의식집, 밀교 경전과 다라니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up>6</sup> 『造像經』, 「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1824년 楡岾寺板.  
‘... 塑像容圓筒 畫幀用方筒 ...’



도 1 불화 복장 일괄 및 〈方形喉鈴筒〉, 조선후기, 紙, 高 9.1cm, 수덕사 근역성보관(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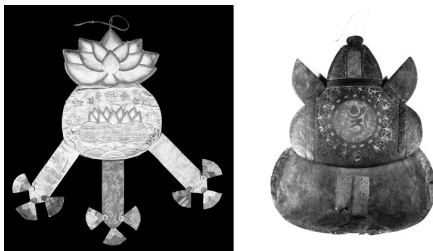
도 2 선암사 괘불 〈圓筒形喉鈴筒〉, 1753년, 銅, 高 7.2cm, 선암사 성보박물관(필자 촬영)

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안에 안립되는 오보병과 오곡, 오약, 오황, 오향 등은 동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 불화 복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현존하는 불화 복장 중 『조상경』의 내용을 충실히 따른 〈方形喉鈴筒〉(도 1)도 발견되지만 1774년 문수사 〈청련암 지장시왕도〉 등과 같이 불보살상에서 발견되는 후령통과 유사한 원통형으로도 확인된다. 재료에 있어서도 대부분 종이로 제작되지만 금속제로 제작한 1753년 선암사 〈괘불화〉의 〈圓筒形喉鈴筒〉(도 2)도 있다.

불화 복장에서 후령통의 형태, 재료의 차이는 후령통의 봉안 위치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불화 복장은 후령통을 넣은 복장낭을 불화의 상단 중앙에 걸어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장사 〈괘불화〉와 같

이 銅鏡을 함께 걸기도 한다. 복장낭은 주로 비단을 사용하여 주머니 형태로 제작되지만 의성 지장사에 소장된 〈복장낭〉은 금속제로 만들어졌다(도 3). 복장낭은 불화 화면 속에서도 등장하는데, 1586년 고국분지[國分寺] 소장 〈地藏十王圖〉(도 4)와 1586년 약센지[藥山寺] 소장 〈감로도〉의 상단 중앙에 입체형의 복장낭을 회화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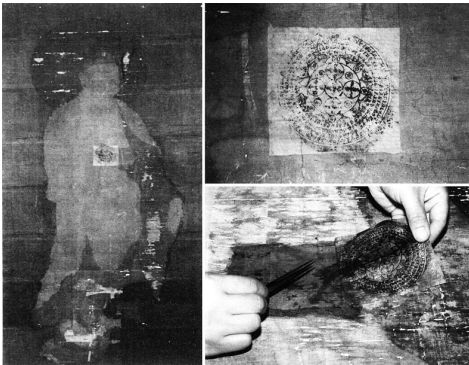
도 3 좌-〈佛畫腹藏囊〉, 조선후기, 絹, 高 48cm, 수덕사 근역성보관(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우-〈腹藏囊〉, 1722년, 銅, 70×50cm, 지장사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2) p. 418)

7 이종수, 앞의 논문, 참조.

불화는 현존하지 않지만 〈청동복장낭〉과 함께 전래되고 있는 〈발원문〉 2점에 의해 1722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크기가 70×50cm인 것으로 보아 괘불화의 복장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도 4 <地藏十王圖>, 1586년, 麻本彩色, 196.1×175.8cm, 일본 고쿠분지[國分寺] (박은경 제공)



도 5 <阿彌陀如來圖>, 14세기, 絹本彩色, 184.0×86.5cm, 일본 쇼보지[正法寺] (박은경 제공)

표현하였다.<sup>8</sup> 복장낭 이외에 후령통을 불화에 봉안하는 방법은 불화의 배접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족자 형태의 불화는 주로 복장낭을 많이 사용하지만 불화의 後面 배접지에 후령통을 별도의 한지로 덮어 부착하기도 한다. 액자 형태로 배접된 불화 중 일부는 나무틀 내부 중앙+자형 주변에 후령통을 넣기도 한다. 또한 일본 쇼보지[正法寺] <阿彌陀如來圖>는 보존처리 시 여래상의 裏面 가슴 역卍字 부근에서 <다라니>(도 5)가 발견되었다.<sup>9</sup> 이는 고려시대 불화뿐만 아니라 족자 형태의 불화에서 복장 안립 방법에 대한 새로운 예시일 뿐만 아니라 불화 복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824년 유점사판 『조상경』 「黃絹幅子安立次第」條에는 黃絹幅子 안에 후령통, 願文, 寶篋呪 등을 순서에 맞춰 안립하는데 있어 처음 복장에 넣을 때 香囊에 봉안한다고 기록하였다.<sup>10</sup> 이는 불보살상의 복장에도 낭이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1302년 아미타불, 해인사 대적광

<sup>8</sup>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시공사, 2008), pp. 458~466, 참조.

두 점의 불화 상단에 표현된 복장낭은 16세기 불화 복장이 현존하지 않지만 당시 복장낭을 불화 상단에 봉안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로 설명되었다.

<sup>9</sup> 박은경, 「고려불화의 변죽-本地, 畫幅, 그리고 奉安에 대한 試論-」, 『동아시아 불교회화와 고려불화』 제3회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미술 심포지엄 자료집(국립중앙박물관, 2010), 참조.

<sup>10</sup> 『造像經』, 「黃絹幅子安立次第」條, 1824년 楡岾寺板.

‘... 가지하고 나서 關伽 공양한 뒤에 부처님의 복장 속에 넣되 똑바로 배꼽에 당하여 바르게 세우고 眞言梵書를 상하 좌우에 충만하여 기울거나 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 복장에 넣을 땐 천천히 남북과 정면, 배후를 살펴서 향주머니에 봉안하되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既加持已 關伽供養後 入於佛腹中 正當臍輪而正立 以眞言梵書充滿上下左右 使無欹斜偃仰之境初入藏之時 徐徐當察南北面背也 奉安於香囊如之也’

전과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의 복장에서 작은 주머니에 사리 등을 넣어 봉안한 사례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불보살상 복장과 相異하다. 하지만 불화 복장은 일반적으로 낭 안에 후령통과 원문, 그리고 五輪種子圖, 眞心種子圖와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등의 種子(도 1)를 넣어 봉안한다.

이외에 복장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이다. 불보살상의 복장기 내용 중 시주질에는 金, 材木, 釘鐵, 魚膠와 燈燭, 末醬 등 像의 구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施主物目 이외에 喉鈴筒, 喉鈴, 八葉, 腹藏經, 五色絲, 青木香, 生銀, 荷葉, 眞紅, 琉璃, 俯子, 雄黃, 浮香, 阿梨, 生金, 五色綃, 人蔘, 法花經, 牛黃, 甘草, 桂心, 丁香, 眞珠 등 『조상경』에서 언급된 복장물이 포함되어 있다.<sup>11</sup> 이러한 기록은 불화의 畫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화기는 불화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基布, 綵色, 黃金, 石紫黃, 大靑, 後排, 魚膠, 阿膠 뿐만 아니라 腹藏, 香囊, 喉鈴筒, 佛靈通, 喉靈通, 圓環, 眞珠, 圓鏡, 荷葉 등 복장과 관련된 시주물목이 기록되었다.<sup>12</sup> 이는 불화의 복장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당시 복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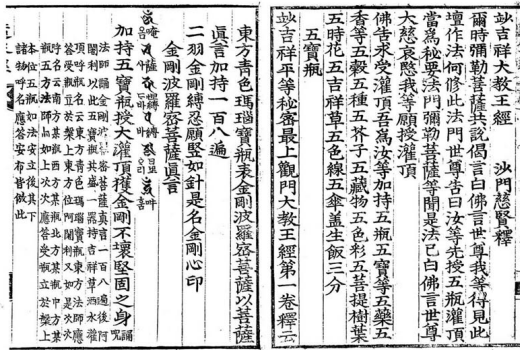
따라서 불화 복장은 봉안 방법과 위치 등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불보살상의 복장물과 기본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조상경』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造像經』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

『조상경』은 복장에 안립되는 복장물과 그 의미, 안립 순서와 의식 등 복장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기록한 경전이다. 『조상경』은 불상의 구성과 관련한 경전을 모아 다른 하나의 경전으로 만든 「大藏一覽經」조, 방위에 따른 복장물과 그 의미 등을 담고 있는 「諸佛菩

<sup>11</sup>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 1639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50년 군산 동국사 <소조아난존자입상>·<소조가섭존자입상>, 1651년 고흥 금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59년 고흥 금담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의 <발원문> 시주 물목을 살펴보면, 像의 구성과 관련한 物目 이외에 불복장에 사용된 물목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불상의 발원문 기록은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참조.

<sup>12</sup> 불화 화기의 시주기록에 대한 분류는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시공사, 2008), pp. 458-473; 정명희, 「舉佛절차와 降臨의 시각화-來蘇寺 掛佛과 畫僧 天信-, 『통도사성보박물관 과불탱 특별전』 23(통도사 성보박물관, 2010); 신광희, 「扶安 開巖寺 掛佛畫, 『통도사성보박물관 과불탱 특별전』 24(통도사 성보박물관, 2011), 참조. 불화 화기는 고경스님 校勘, 송천스님·이중수·허상호·김정민 編著, 『韓國의 佛畫 畫記集』(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11), 참조.



도 6 『造像經』, 『妙吉祥大教王經』條, 五寶瓶 중 東方青色瑪瑙寶瓶, 1824년 유점사판

중 동쪽의 보병인 青色瑪瑙寶瓶을 준비하고 誦呪法師가 金剛波羅蜜菩薩眞言을 108번 염송하여 大灌頂을 받으면 金剛과 같은 파괴되지 않는 몸을 얻는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도 6). 즉, 『묘길상대교왕경』조는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에서 열거된 동남서북중앙의 오보병 안에 五穀, 五寶, 五藥, 五香, 五芥子 등의 복장물을 넣으면서 송주법사가 각 복장물에 해당되는 진언을 108편씩을 염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불복장의식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五輪種子圖, 眞心種子圖, 八葉大紅蓮之圖 등 복장물로 안립되는 여러 圖解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삼실지단석」조에는 出悉地, 入悉地, 秘密悉地, 列金剛王如來, 佛菩薩點筆方 八眼, 准提九聖梵字가 기록되었다. 또한 1824년 유점사판은 點眼文을 추가하여 불보살상의 점안과 관련된 진언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따라서 『조상경』은 복장물과 그 의미, 불복장의식의 순서와 절차, 그리고 이때 염송되는 진언, 점안 관련 범자 등을 기록한 경전이며, 이를 통해 불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이 함께 포함되어 간행된 의식집임을 알 수 있다.

薩腹藏壇儀式』조, 의식 절차를 기록한 「妙吉祥大教王經」조와 「三悉地檀釋」조로 구성되었으며<sup>13</sup>, 1824년 유점사판은 點眼文이 추가되었다.

『조상경』의 각 조에는 범자와 진언이 수록되었다(표 1).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범자는 복장물 자체를 상징하고, 『묘길상대교왕경』조는 복장물을 불보살상 안에 안립하면서 염송되는 진언이다. 예를 들어 五寶瓶

13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261호(한국미술사학회, 2009), p. 80.

표 1 『造像經』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sup>14</sup>

목차		1575년 龍泉寺板	조선후기 필사본	1824년 楡岾寺板
諸佛菩薩腹藏壇儀式		火聚眞言	火聚眞言	火聚眞言 一切如來全身舍利寶眞言
		四方眞言	四方眞言	四方呪
		五輪種子	五輪種子	五輪種子
				報身呪
				化身呪
		眞心種子	眞心種子	眞心種子
				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
五寶瓶	東方青色瑪瑙寶瓶	金剛波羅蜜菩薩眞言	金剛波羅蜜菩薩眞言	金剛波羅蜜菩薩眞言
	南方黃色摩尼寶瓶	寶生波羅蜜菩薩眞言	寶生波羅蜜菩薩眞言	寶生波羅蜜菩薩眞言
	西方紅色珊瑚寶瓶	蓮花波羅蜜菩薩眞言	蓮花波羅蜜菩薩眞言	蓮華波羅蜜菩薩眞言
	北方綠色琉璃寶瓶	羯摩波羅蜜菩薩眞言	羯摩波羅蜜菩薩眞言	羯摩波羅蜜菩薩眞言
	中方白色水晶寶瓶	根本波羅蜜菩薩眞言	根本波羅蜜菩薩眞言	根本波羅蜜菩薩眞言
	五穀	阿閼佛眞言/金剛波羅蜜菩薩眞言	阿閼佛眞言/金剛波羅蜜菩薩眞言	阿閼佛眞言/金剛波羅蜜菩薩眞言
	五寶	寶生佛眞言/寶生波羅蜜菩薩眞言	寶生佛眞言/寶生波羅蜜菩薩眞言	寶生佛眞言/寶生波羅蜜菩薩眞言
	五藥	無量壽佛眞言/法波羅蜜菩薩眞言	無量壽佛眞言/法波羅蜜菩薩眞言	無量壽佛眞言/法波羅蜜菩薩眞言
	五香	不空成就佛眞言/羯摩波羅蜜菩薩眞言	不空成就佛眞言/羯摩波羅蜜菩薩眞言	不空成就佛眞言/羯摩波羅蜜菩薩眞言
	五黃	毘盧遮那佛眞言/根本波羅蜜菩薩眞言	毘盧遮那佛眞言/根本波羅蜜菩薩眞言	毘盧遮那佛眞言/根本波羅蜜菩薩眞言
五芥子	東方焰曼怛迦大明王阿閼化身眞言	東方焰曼怛迦大明王阿閼化身眞言	東方焰曼怛迦大明王阿閼化身眞言	
	南方鉢羅拏也怛迦大明王毘盧化身眞言	南方鉢羅拏也怛迦大明王毗盧化身眞言	南方鉢羅拏也怛迦大明王毘盧化身眞言	
	西方鉢納摩怛迦大明王寶生化身眞言	西方鉢納摩怛迦大明王寶生化身眞言	西方鉢納摩怛迦大明王寶生化身眞言	
	北方尾佉曩怛迦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北方尾佉曩怛迦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北方尾佉曩怛迦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東南方吒枳羅惹大明王不空化身眞言	東南方吒枳羅惹大明王不空化身眞言	東南方吒枳羅惹大明王不空化身眞言	
	西南方鞞羅能拏大明王阿閼化身眞言	西南方鞞羅能拏大明王阿閼化身眞言	西南方鞞羅能拏大明王阿閼化身眞言	
	西北方摩訶摩羅大明王阿閼化身眞言	西北方摩訶摩羅大明王阿閼化身眞言	西北方摩訶摩羅大明王阿閼化身眞言	
	東北方阿左攞曩他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東北方阿左攞曩他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東北方阿左攞曩他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下方縛羅播多羅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下方縛羅播多羅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下方縛羅播多羅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上方塢瑟灑作訖羅縛里帝大明王阿閼化身眞言	上方塢瑟灑作訖羅縛里帝大明王阿閼化身眞言	上方塢瑟灑作訖羅縛里帝大明王阿閼化身眞言	

<sup>14</sup> (표 1)의 목차는 1824년 유점사판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총 6종류의 『조상경』 중 가장 연대가 이른 1575년 용천사판, 다른 판본에 포함되지 않은 범자와 진언이 기록된 조선후기 필사본, 그리고 가장 체제의 변화가 많은 1824년 유점사판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외에 다른 판본들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제외하였다.

妙吉祥 大教王經	五彩色幡	金剛手菩薩真言	金剛手菩薩真言	金剛手菩薩真言
	五色絲	中方本尊隨求真言	中方本尊隨求真言	中方本尊隨求真言
	五時花	虛空菩薩真言	虛空菩薩真言	虛空菩薩真言
	五菩提樹葉	地藏菩薩真言	地藏菩薩真言	地藏菩薩真言
	五吉祥草	五吉祥草真言	五吉祥草真言	吉祥草真言
	五傘蓋	白傘蓋真言	白傘蓋真言	白傘蓋真言
	八葉大紅蓮之圖		八葉大紅蓮之圖	八葉大紅蓮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列金剛地方之圖	列金剛地方之圖
	五輪種子圖		五輪種子圖	五輪種子圖
	眞心種子圖		眞心種子圖	眞心種子圖
	准提九字圖		准提九字圖	准提九字圖
	入悉地圖		入悉地圖	入悉地圖
	出悉地圖		出悉地圖	出悉地圖
黃納幅子內安立次第			不動尊真言	
三悉地壇釋	秘密悉地	秘密悉地	秘密悉地	
	入悉地	入悉地	入悉地	
	出悉地	出悉地	出悉地	
	點筆方	點筆方	佛菩薩點筆方 八眼	
三悉地壇釋	准提九字	准提九字	准提九聖梵字	
			唵啊吽理解	
			五如來種子	
			四波羅蜜菩薩種子	
			內八菩薩種子	
			外八菩薩種子	
			鉤索鎖鈴種子	
			十大明王種子	
	列金剛王如來	列金剛王如來	列金剛王	
			羅漢六通三明	
		天王十王五通五力		
	寶篋真言			
	六字大明真言			
	寶篋真言			
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大明觀 想儀			八葉大紅蓮華 曼拏羅 八葉位分布 觀想大明王文字	
			復於蓮花內圍分布八位	
			一切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 尼	
			小寶篋陀羅尼	
點眼文 / 點眼文諸真言			解穢真言	
			淨法界真言	
			動鈴真言	
			佛部真言	
			五色絲真言	
		蓮華部真言		

點眼文 / 點眼文諸眞言			金剛部眞言
			護身被甲眞言
			降魔眞言
			開眼光明眞言
			安佛眼眞言
			安佛眞言
			安莊嚴眞言
			三十二相眞言
			八十種好眞言
			補闕眞言
			施水眞言
			普禮眞言
			召請諸佛菩薩及眷屬眞言
			帝釋天王除垢穢眞言
			帝釋心眞言
			帝釋天后眞言
			金剛壽命陀羅尼
			延壽命陀羅尼
			消災吉祥陀羅尼
			穢迹大圓滿陀羅尼
		十大明王本尊眞言	
		召請八部眞言	
		金剛部心眞言	
		吉利忿怒眞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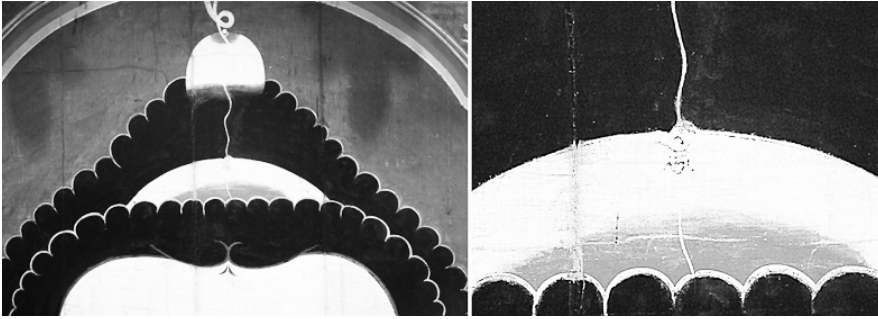
## IV.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

### 1. 범자의 기록

범자는 안국사 <괘불화><sup>15</sup>를 제외하고 의겸이 제작한 <괘불화>의 불보살상에서 확인된다. 청곡사 <괘불화>는 범자가 墨書(도 7)된 반면 다른 <괘불화>는 朱書(도 8)되었다. 범자는 대부분 채색이 이루어지기 전 기록되었는데<sup>16</sup>, 이를 통해 범자는 조성 당시부터 계획

<sup>15</sup> 1728년 안국사 <괘불화>는 의겸이 제작한 다른 괘불화와 마찬가지로 존상의 각 부위에 범자가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안국사 <괘불화>의 불보살상에 범자의 기록 유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며, 본고에서는 안국사 <괘불화>를 제외하고 다른 4점의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sup>16</sup> 상호, 어깨, 발 등 신체에 직접 기록되는 범자는 채색이 이루어지기 전 주서되었으나 운홍사 <괘불화>와 같이 진채로 채색되는 법의에 기록된 일부 범자의 경우 채색이 완료된 후 주서되기도 하였다.



도 7 청곡사 <괘불화> 범자 墨書, 1722년, 1,000×637cm, 麻本彩色, 청곡사(필자 촬영)



도 8 운흥사 <괘불화> 범자 朱書, 1730년, 1,052×726cm, 麻本彩色, 운흥사(필자 촬영)

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특정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점의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의 위치는 불보살상의 정상, 눈썹, 미간, 눈위, 눈동자, 눈아래, 입술 등의 상호, 그리고 목, 가슴, 어깨, 다리, 발 등의 신체이다. 이와 같은 범자는 『조상경』 「삼십지단석」 조의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三悉地壇釋」 조에 기록된 범자의 위치<sup>17</sup>

	정상	미간	눈썹	눈위	눈 동자	눈 아래	입	목	어깨	겨드 랑이	가슴	배꼽	다리	발
佛菩薩點 筆方八眼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准提九聖 梵字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羅漢六通 三明					ㄷ				ㄷ	ㄷ		ㄷ	ㄷ	ㄷ
天王十王 五通五力	ㄷ						ㄷ	ㄷ	ㄷ		ㄷ			

<sup>17</sup> 1824년 유점사관 『조상경』은 「삼십지단석」 조에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 이외에 羅漢六通三明, 天王十王五通五力이 추가되었는데, 나한, 천왕 및 시왕과 관련된다.

불보살점필방 팔안은 상호와 정수리, 어깨, 그리고 가슴에 해당되는 범자를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눈은 눈 위, 눈동자, 눈 아래로 세분화였다. 준제구성범자는 정수리와 눈동자, 심장을 제외하고 목, 어깨, 배꼽, 겨드랑이, 다리, 발 등의 범자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는 범자를 정상, 상호, 심장, 그 이외의 부분으로 명백히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수리, 눈동자, 심장의 범자는 중복하여 기록함으로써 다른 위치에 비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羅漢六通三明과 天王十王五通五力은 가감은 있지만 신체 위치에 따른 범자의 종류로 볼 때, 준제구성범자에 포함된다.

「삼십지단석」조의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를 4점의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본 고에서는 여러 범자 중 가장 강조된 정상, 눈, 가슴에 해당되는 범자와 함께 기록상 차이를 보이는 범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삼십지단석」조와 동일하게 발부터 서술하겠다.

표 3 의겸 제작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 비교<sup>18</sup>

위치	청곡사 괘불화 (1722년)	운흥사 괘불화 (1730년)	다보사 괘불화 (1745년)	개암사 괘불화 (1749년)	『조상경』	
					佛菩薩 點筆方	准提九 聖梵字
정상계주 (옴)						
보관						
중간계주						
이마						
백호 (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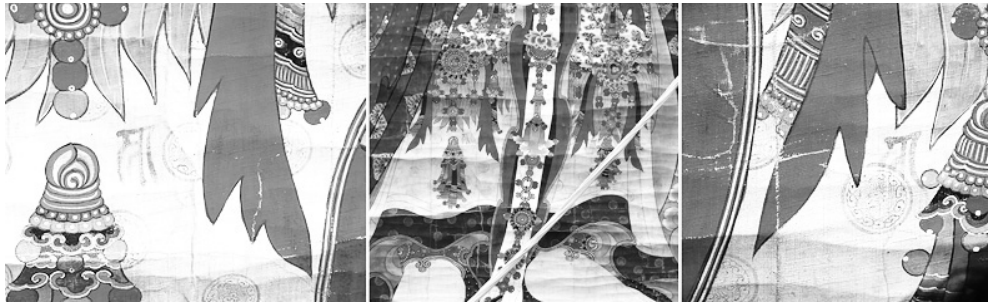
<sup>18</sup> 4점의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의 자형을 흑색과 백색으로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는 1575년 용천사판 『조상경』을 비롯하여 1824년 유점사판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자형의 변화는 확인되지만 범자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괘불화의 제작 연대와 유사한 시기의 『조상경』에 기록된 범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관계로 체제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현재 불복장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은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1824년 유점사판 『조상경』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1722년 청곡사 <괘불화>의 범자는 대부분 채색이 이루어지기 전 먹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추후 더 많은 범자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눈썹 (밤)						-
눈위 (람)						-
눈동자 (함/자)						
눈아래 (감)						-
입 (아)						-
목 (례)					-	
가슴 (흙/주)						
어깨 (례)					-	
배꼽 (준)					-	
겨드랑이 (제)					-	
다리 (스바)					-	
발 (하)					-	

발의 ‘하’字는 청곡사 <괘불화>와 다보사 <괘불화>의 경우 기록 有無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운흥사 <괘불화>와 개암사 <괘불화>에서 확인된다. 특히 운흥사 <괘불화> 보현보살의 우측 발은 ‘하’자를, 좌측 발은 목과 어깨에 안치하는 ‘례’자가 동시에 기록되었다.<sup>19</sup> 다리를 가리키는 ‘스바’자는 청곡사 <괘불화>를 제외하고 운흥사 <괘불화>는 석가여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다보사 <괘불화>는 보현보살, 개암사 <괘불화>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 주서되었다. ‘스바’자는 위치상 보살상의 다리를 짐작할 수 있는 균의에 표기되었으며, 모

<sup>19</sup> 운흥사 <괘불화> 보현보살을 제외하고 개암사 <괘불화>도 모두 발은 ‘하’자만 기록되었다. 운흥사 <괘불화>의 보현보살에서 ‘하’자와 ‘례’자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형태가 유사한 범자의 기록에 따른 표기상 오기로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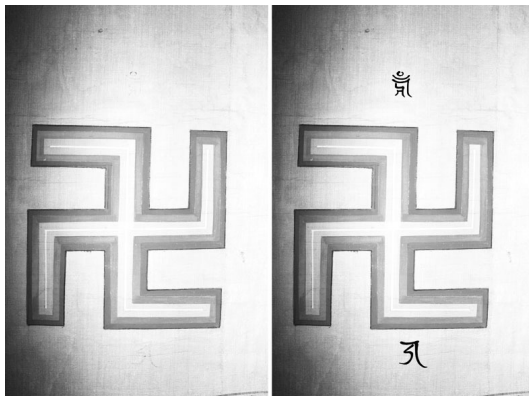


도 9 중앙-운홍사 <괘불화> 보현보살 군의의 '스바' 기록, 1730년, 1,052×726cm, 麻本彩色, 운홍사(필자 촬영) 좌·우-부분 확대(필자 촬영)

두 <괘불화>의 전면에 배치된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다(도 9). 이를 통해 불보살 상에 범자를 기록함에 있어 『조상경』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기록 위치는 유동적으로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배꼽을 가리키는 '준'자는 운홍사 <괘불화>의 보현보살, 관음보살, 아미타불만 기록되었다. 겨드랑이는 '제'자를 안치하는데, 다보사 <괘불화>의 보현보살과 개암사 <괘불화>의 문수보살 군의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범자들은 신체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록 위치, 범자의 유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준제구성범자와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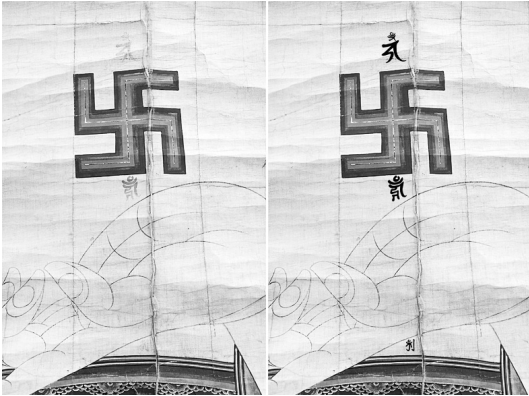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의 범자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가슴과 눈이다.

가슴에 안치하는 범자로 불보살점필방 팔안은 '흙'자로, 준제구성범자는 '주'자로 설명하고 있다. 개암사 <괘불화>는 석가모니불, 보현보살, 대세지보살의 가슴 부분에 '흙'자를 먼저 기록하고 '주'자를 그 밑에 기록하였다. 특히 석가모니불은 가슴의 역관자 위와 아



도 10 좌-개암사 <괘불화> 석가모니불 가슴의 '흙·주' 기록, 1749년, 1,208×868.5cm, 麻本彩色, 개암사(필자 촬영) 우-'흙·주'의 자형을 흑색으로 편집 수록

래에 두 범자를 순서대로 기록하였다(도 10). 이는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에 표기된 범자 1자씩을 동시에 기록한 것이다. 운홍사 <괘불화>의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은 '람·주·옴·암'(도 11), 보현보살은 '주·람·옴·암', 관음보살은 '밤·□·례·암', 대세지보살은 '밤·람·감', 아미타불은 '주·람·암', 다보여래는 '람·주·암'자를 주서하였다. 즉, 운홍사 <괘불화>의 불보살상 가슴에는 '람·주·



도 11 좌-운홍사 <괘불화> 석가모니불 가슴의 ‘암·주·옴·암’ 기록, 1730년, 1,052×726cm, 麻本彩色, 운홍사 (필자촬영)  
우-주서된 ‘암·주·옴·암’의 자형을 흑색으로 편집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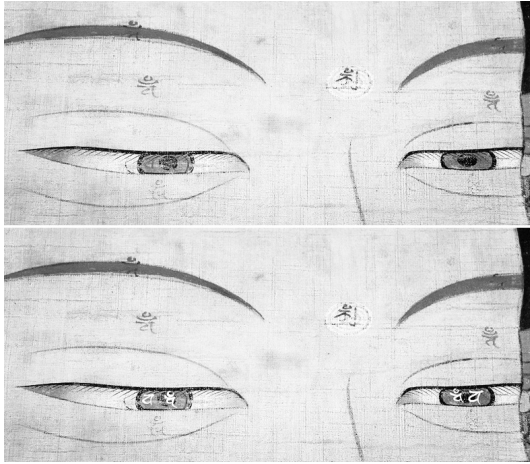
도 12 무위사 극락보전 <阿彌陀三尊圖> 아미타불 가슴의 ‘흠’ 기록, 1476년, 270×210cm, 土壁彩色, 무위사 (『한국의 불화』 대홍사 본말사편 31, p. 36)

옴·암·감·밤·레’의 7자가 각 존상마다 3~4자로 구성되어 기록되었다. 의겸이 제작한 <괘불화> 이외에 1476년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도>의 아미타불 가슴에도 주서된 ‘흠’자가 확인된다(도 12). 이를 통해 당시 『조상경』과 유사한 경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미타삼존도>는 아미타불의 가슴 이외에 상호와 신체에서 범자가 확인되지 않아 전거한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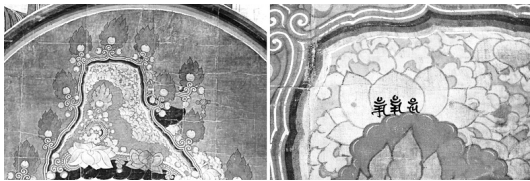
눈은 눈 위, 눈동자, 눈 아래로 나누어 범자가 기록되었다. 불보살점필방 팔안에서 눈 아래는 ‘감’자, 눈 위는 ‘람’자로 설명되었다. 눈 아래는 4점의 <괘불화> 모두 ‘감’자로 기록되었지만 눈 위는 청곡사 <괘불화><sup>20</sup>, 운홍사 <괘불화>와 다보사 <괘불화>는 ‘람’자로 기록된 반면 개암사 <괘불화>는 눈썹을 가리키는 ‘밤’자로 기록되어 차이가 있다. 특히 눈동자는 불보살점필방 팔안에서 ‘함’자로, 준제 구성범자에서는 ‘자’자로 기록하였다.

개암사 <괘불화>는 좌측 눈동자에 ‘자·함’의 순서로 기록한 반면 우측 눈동자는 ‘함·자’자로 기록하여 좌우 눈동자의 범자는 동일하지만 두 범자의 순서를 바꾸고 있으며, 각 존상

<sup>20</sup> 청곡사 <괘불화>의 불보살상에서 눈 위에 기록된 ‘람’자는 다른 <괘불화>의 ‘람’자와 자형에서 차이가 있다. 『조상경』과 비교해 보면, 청곡사 <괘불화>의 ‘람’자는 1575년 용천사판과 동일한 자형이다. 따라서 판본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판각하지만 범자의 경우 한자와 달리 목판에 직접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 자형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도 13 상-개암사 <괘불화> 대세지보살 눈동자의 ‘함·자’ 기록, 1749년, 1,208×868.5cm, 麻本彩色, 개암사 (필자 촬영)  
하-주서된 ‘함·자’의 자형을 백색으로 편집 수록



도 14 좌-다보사 <괘불화> 문수보살 보관의 ‘옴·옴·캄’ 기록, 1745년, 1,077×777.5cm, 麻本彩色, 다보사(정우택 제공)  
우-주서된 ‘옴·옴·캄’의 자형을 흑색으로 편집 수록



보관에는 ‘옴·옴·캄’, 관음보살 보관은 ‘옴·캄’자로 기록되어 차이가 있다(도 14).

입은 불보살점필방 팔안에서 ‘아’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괘불화>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개암사 <괘불화>의 보현보살 입술에서 범자 1자가 확인되나 불분명하며, 대세지보살은 약 6자의 범자로 추측되지만 『조상경』에 기록된 진언과의 비교는 어려운 상태이다.

4점의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를 비교해 본 결과 1722년 청곡사 <괘불화>에 간략하게 기록되던 범자가 운흥사 <괘불화>에서 『조상경』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도 가슴 등에서 독특한 범자의 기록이 확인되는 등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다보사 <괘불화> 이후 특히 개암

마다 동일하다(도 13). 다보사 <괘불화>에서 다보여래도 ‘함’자와 ‘자’자를 좌우 눈동자에 따라 순서를 바꿔서 기록되었지만 다른 불보살상은 상하로 배치되었다. 따라서 가슴에 ‘옴’자와 ‘주’자를, 눈동자에 ‘함’자와 ‘자’자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은 불보살 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에서 1자씩 채용한 것이며, 가슴과 눈동자에 해당되는 범자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불보살상의 정상에는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에서 모두 ‘옴’자로 표기되었으나<sup>21</sup> 정상계주, 중간계주, 보관에 따라 기록된 위치에 차이가 있다. 특히 운흥사 <괘불화>의 대세지보살, 아미타불, 다보여래의 정상에는 ‘옴’자 밑으로 다시 ‘옴’자와 ‘캄’자의 순서가 서로 변경되어 기록되었다. 다보사 <괘불화>는 석가모니 불의 정상계주에 ‘캄·옴’, 문수보살의

21 <괘불화>의 불보살상에 기록된   는 자형의 차이일 뿐 모두 ‘옴’자를 가리킨다.

사 <괘불화>에 이르러 『조상경』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되고 있어 불보살상에 기록된 범자는 『조상경』을 바탕으로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겸이 1722년 청곡사 <괘불화>를 제작할 당시부터 이미 『조상경』과 여러 의식집에 포함된 범자와 점안의식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sup>22</sup>

## 2. 진언의 기록

괘불화, 후불도, 신중도 등 일부 불화의 사방 가장자리에서 진언이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진언은 불화의 사방, 상하단, 좌우측에 기록되기도 하며, 방향이 아닌 화면의 가장자리에 의도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두어 기록하였다. 진언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상단과 하단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록된다.<sup>23</sup>

표 4 진언이 기록된 불화

	유물명칭	제작연도	현소장처	비고
1	長谷寺 掛佛畫	1673	장곡사	國寶 제300호
2	麻谷寺 掛佛畫	1678	마곡사	寶物 제1260호
3	桐華寺 阿彌陀說法圖	1699	동화사 聖寶博物館	
4	南長寺 甘露圖	1701	남장사	寶物 제1641호
5	金龍寺 掛佛畫	1703	김용사	寶物 제1640호
6	龍門寺 掛佛畫	1705	용문사	
7	寶鏡寺 掛佛畫	1708	보경사	寶物 제1609호
8	大屯寺 三藏菩薩圖	1740	대둔사	
9	直指寺 釋迦說法圖	1744	직지사	寶物 제670호
10	直指寺 阿彌陀說法圖	1744	직지사	寶物 제670호
11	直指寺 藥師說法圖	1744	직지사	寶物 제670호
12	浮石寺 掛佛畫	1745	부석사	

<sup>22</sup> 정명희, 「靑谷寺 掛佛幀과 『五種梵音集』」,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10(통도사성보박물관, 2003); 정명희,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的 變用」, 『불교미술사학』제 2집(불교미술사학회, 2004); 정명희, 「擧佛절차와 降臨의 시각화-來蘇寺掛佛과 畫僧 天信-」,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23(통도사성보박물관, 2010)에 의하면, 의겸이 제작한 괘불화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다보여래와 아미타불,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배치된 영산회괘불화로 이후 이러한 도상이 본격적으로 유행하였고 설명하였다. 이는 의겸이 『오종범음집』과 같은 의식집에서 도상을 채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당시 의겸이 의식집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sup>23</sup> 진언의 서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기록되지만 1673년 장곡사 <괘불화>는 상하좌우의 기록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형을 좌우로 눕혀서 기록하였다.

13	廣德寺 掛佛畫	1749	광덕사	寶物 제1261호
14	銀海寺 掛佛畫	1750	은해사 聖寶博物館	寶物 제1270호
15	莊陸寺 釋迦說法圖	1764	불국사	
16	法住寺 掛佛畫	1766	법주사	寶物 제1259호
17	通度寺 掛佛畫	1767	통도사 聖寶博物館	寶物 제1350호
18	鷲棲寺 掛佛畫	1768	축서사	
19	佛國寺 釋迦說法圖	1769	불국사	
20	高方寺 神衆圖	1770	고방사	
21	泉隱寺 阿彌陀說法圖	1776	천은사	寶物 제924호
22	南長寺 掛佛畫	1788	남장사	
23	南長寺 十六羅漢圖	1790	남장사	
24	通度寺 十六羅漢圖	1926	통도사	

불화에 기록된 진언은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조상경」에 수록된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와 「묘길상대교왕경」조, 그리고 「삼실지단석」조에 포함된 진언이 함께 혼용된 불화이다. 1673년 장곡사 <괘불화>, 1701년 남장사 <감로도>, 1703년 김용사 <괘불화>, 1708년 보경사 <괘불화>, 1744년 직지사 <삼세후불도>, 1766년 법주사 <괘불화>, 1767년 통도사 <괘불화>, 1768년 축서사 <괘불화>, 1788년 남장사 <괘불화>, 1926년 통도사 <십육나한도>가 해당된다.



도 15 장곡사 <괘불화>, 1673년, 809×566cm, 麻本彩色, 장곡사(필자 촬영)

1673년 장곡사 <괘불화>(도 15)는 毘盧遮那佛眞言<sup>24</sup>과 阿閼佛眞言<sup>25</sup>, 그리고 오보병 중 동·남·서·북방의 진언을 비롯하여 중앙의 根本波羅蜜菩薩眞言 중 일부, 五芥子 중 東方, 南方, 西方, 北方, 東南方에 해당되는 진언 등 대

<sup>24</sup> 「묘길상대교왕경」조에 의하면, 비로자나불진언은 대황, 옹황, 소황, 자황, 우황의 옹황을 안립하면서 염송되며, 이 진언을 108번 염송하여 대관정을 받으면 윤회를 초월하고 청정한 몸을 얻는다고 설명하였다.

<sup>25</sup> 대맥, 기장, 벼, 녹두, 마자의 오곡을 오보병 안에 봉안하면서 아축불진언을 108번 염송함으로써 대관정을 받는 것이 상주불멸의 의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부분 복장물을 안립하면서 염송되는 「묘길상대교왕경」조의 진언이다.<sup>26</sup> 또한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에 포함된 사방주,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陀羅尼, 진심종자, 오륜종자 이외에 육자대명진언<sup>27</sup>이 기록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1673년 장곡사 <괘불화>에 기록된 진언<sup>28</sup>

諸佛菩薩腹藏壇儀式	五輪種字	 (암·람·밤·함·감)	
	眞心種字	 (흙·드락·ㅎ릭·약·밤)	
	四方呪	 (아·마·라·하)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陀羅尼	 (옴·바·계·타·나·마·스바·하)	
妙吉祥大教王經	五黃	 毘盧遮那佛眞言/根本波羅蜜菩薩眞言(옴·바·으라·다·도·밤)	
	五穀	 阿閼佛眞言/金剛波羅蜜菩薩眞言(옴·약·수·바·흙)	
	五寶瓶	東方青色 瑪瑙寶瓶	 金剛波羅蜜菩薩眞言(옴·사·드바·바·으리·흙)
		南方黃色 摩尼寶瓶	 寶生波羅蜜菩薩眞言(옴·라·드나·바·으리·드랑)

<sup>26</sup> 일부 진언 사이에 ‘옴, 아, 밤, 람, 함’자가 2~3자로 조합되어 기록되어 있으나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조상경』에서 확인할 수 없어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곡사 <괘불화>에 기록된 진언 중 東方焰曼怛迦大明王阿閼化身眞言, 육자대명진언, 東南方吒枳羅惹大明王不空化身眞言, 羯摩波羅蜜菩薩眞言은 각각 1자씩 생략되어 있으며, 蓮華波羅蜜菩薩眞言은 1자가 추가되어 기록되었다. 이는 진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표기상의 문제로 파악된다.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다라니, 根本波羅蜜菩薩眞言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는데, 좌측 하단에 자리하고 있어 기록 위치상 진언 전체를 표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sup>27</sup> 육자대명진언은 조선후기에 필사된 『조상경』과 여러 의식집에 포함되어 있으며, 범종과 향완, 법당 내부의 단청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부터 많이 사용되던 진언 중 하나이다.

<sup>28</sup> (표 5)에 정리된 진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자형의 황색을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妙吉祥大教 王經	五寶瓶	西方紅色 珊瑚寶瓶	 蓮花波羅蜜菩薩真言(옴·달·마·바·으리·ㅎ릭)
		北方綠色 琉璃寶瓶	 羯摩波羅蜜菩薩真言(옴·갈·마·바·으리·악)
		中方白色 水精寶瓶	 根本波羅蜜菩薩真言(옴·상·가·리·션·디·가·리·우·타·니·가· 타·야·살·발·다·사·다·야·스바·하)
	五芥子	東方	 焰曼怛迦大明王阿閼化身真言(옴·바·으라·구로·다·흙·흙·흙·바· 탁·바·탁·바·탁·염·만·다·구·함)
		南方	 鉢羅拏也怛迦大明王毘盧化身真言(므라·양·다·구·함)
		西方	 鉢納摩怛迦大明王寶生化身真言(바·눔·다·구·함)
		北方	 尾佐曩怛迦大明王阿彌陀化身真言(미·마·다·구·함)
		東南方	 吒枳羅惹大明王不空化身真言(옴·탁·기·흙·악)
	三悉地壇	六字大明真言	 (옴·마·니·반·메·흙)

1744년 직지사 <삼세후불도>는 3폭 모두 사방에서 진언이 확인된다(도 16).<sup>29</sup> <석가설  
법도>는 「삼실지단석」조의 출실지, 비밀실지<sup>30</sup>, 입실지를 시작으로 「제불보살복장단의식」

<sup>29</sup>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해인행, 2008), p. 205에 의하면 <삼세후불도>에 기록된 진언은 결계진언이고 대  
웅전 천장의 결계진언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서술하였다. <삼세후불도>의 사방 가장자리에 진언종자를 기  
록함으로써 佛의 세계를 수호하는 것이며, 대웅전의 천장에 <삼세후불도>와 같은 종류의 진언들로 장엄함으  
로써 佛을 봉안한 전각을 수호하려는 이중적 결계가 부여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밀교의 행법에서 단상  
결계와 국토결계의 성격을 탕화와 대웅전의 장엄에 활용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sup>30</sup> 『조상경』에서 비밀실지의 진언은 '암·밤·람·함·캄'이고 오륜종자는 '암·람·밤·함·캄'으로 전체적으로 범  
자는 동일하지만 '밤·람'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부 불화 중 삼실진언과 함께 진심종자만 기록한 경  
우 비밀실지와 오륜종자의 범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오륜종자를 생략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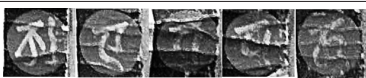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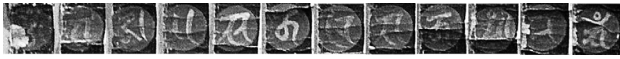








도 16 직지사 <三世後佛圖>, 1744년, 麻本彩色, 직지사(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조의 사방주, 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 진심종자가 기록되었다. 그 외 아축불진언을 포함하여 모두 「묘길상대교왕경」조에 해당되는 진언들이다. <약사여래설법도>는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 오륜종자, 열금강왕여래, 그리고 동·남·서·북·중앙의 오보병 관련 진언, 소보협다라니, 五色絲, 五時花, 五菩提樹葉, 五吉祥草, 五傘蓋 관련 진언이 기록되었다. <아미타설법도>는 오개자의 上方과 下方 관련 진언 등이 포함되었다.<sup>31</sup> 따라서 직지사 <삼세후불도>에 기록된 진언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상경』과 동일한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1673년 장곡사 <괘불화>와 마찬가지로 「복장소입제색」조, 「묘길상대교왕경」조, 「삼실지단석」조의 진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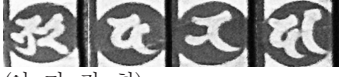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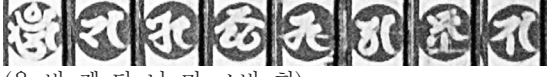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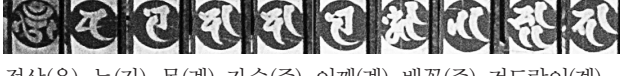
1768년 축서사 <괘불화>, 1701년 남장사 <감로도>, 1708년 보경사 <괘불화>, 1766년 법주사 <괘불화>, 1767년 통도사 <괘불화>, 1926년 통도사 <십육나한도>는 「삼실지단석」조의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와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 「묘길상대교왕경」조에 포함된 진언이 혼용되면서도 몇 개의 진언만을 선별하여 간략하게 기록하였다(표 6).




<sup>31</sup> 직지사 <아미타설법도>에 기록된 진언 전체를 해석하기에 현재 어려움이 있으나 절반 이상이 「삼실지단석」조, 「묘길상대교왕경」조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미타설법도>에 기록된 진언은 『조상경』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삼실지단석」 조,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조, 「묘길상대교왕경」의 진언 혼용<sup>32</sup>

1701년 南長寺 <감로도>	三悉地壇釋	秘密悉地	 (아·밤·람·함·갑)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佛說佛母般 若波羅蜜多 大明觀想儀	小寶篋 陀羅尼	 (옴·바·라·바·샤·가·리·아·나·맘·라·흠)	
1708년 寶鏡寺 <괘불화>	妙吉祥 大教王經	五穀	 阿閼佛眞言/金剛波羅蜜菩薩眞言 (옴·약·수·바·흠)
	三悉地壇釋	出悉地	 (아·라·바·자·나)
六字 大明眞言		 (옴·마·니·반·메·흠)	
1766년 法住寺 <괘불화>	諸佛菩薩腹 藏壇儀式	五輪種字	 (아·람·밤·함·갑)
		眞心種字	 (흠·락·흘·약·밤)
	三悉地壇釋	秘密悉地	 (아·밤·람·함·갑)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sup>32</sup> 1708년 보경사 <괘불화>는 진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형의 황색을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六字 大明眞言  (음·마·니·반·메·흠)
		准提 九聖梵字  발(하)·다리(스바)·겨드랑이(제)·배꼽(준)·어깨(례)·가슴(주)·목(례)·눈(자)·정상(음)
1767년 通度寺 <괘불화>	諸佛菩薩腹 藏壇儀式	眞心種子  (흠·드락·헝릭·악·밤)
		四方呪  (아·마·라·하)
		文殊菩薩 印能消定 業陀羅尼  (음·바·계·타·나·마·스바·하)
	妙吉祥大 教王經	五香  不空成就佛眞言/羯摩波羅蜜菩薩眞言(음·아·모·가·심·데·악)
		白傘蓋 眞言   (음·살·바·다·타·아·다·제·드라·보·아·망·가·삼·모·느라·싸·라·나·삼·마·예·흠)
	三悉地壇釋	秘密悉地  (암·밤·람·함·감)
		入悉地  (아·바·라·하·가)
		出悉地  (아·라·바·자·나)
		六字 大明眞言  (음·마·니·반·메·흠)
		准提 九聖梵字  정상(음)·눈(자)·목(례)·가슴(주)·어깨(례)·배꼽(준)·겨드랑이(제)·다리(스바)·발(하)

	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 大明觀想儀	小寶篋 陀羅尼	 (옴·바·라·바·마·반·리·마·샤·라·흠)
1926년 通度寺 〈십육나 한도〉	諸佛菩薩腹 藏壇儀式	四方呪	 (아·마·라·하)
	三悉地壇	准提 九聖梵字	 발(하)·다리(스바)·겨드랑이(제)·배꼽(준)·어깨(례)·가슴(주)· 목(례)·눈(자)·정상(옴)

둘째는 「삼실지단석」조의 진언이 기록된 불화이다.

1687년 마곡사 <괘불화><sup>33</sup>, 1699년 동화사 <아미타설법도>, 1705년 용문사 <괘불화><sup>34</sup>, 1745년 부석사 <괘불화><sup>35</sup>, 1749년 광덕사 <괘불화>, 1764년 장륙사 <석가설법도>, 1769년 불국사 <석가설법도>, 1770년 고방사 <신중도>, 1776년 천은사 <아미타설법도>, 1790년 남장사 <십육나한도> 등이 해당되며, 각 불화에 기록된 진언들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삼실지단석」조의 진언이 기록된 불화<sup>36</sup>

1687년 麻谷寺 〈괘불화〉	列金剛王 如來	 日精菩薩(작)·月精菩薩(감)·精進菩薩(빙)·文殊菩薩(참)·觀世音菩薩(삭)· 彌勒菩薩(릭)·釋迦如來(밤)·藥師如來(부)·阿彌陀如來(헝릭)·大勢至菩薩 (삼)·普賢菩薩(밤)·虛空菩薩(감)·盧舍那佛(샹)
	六字 大明眞言	 (옴·마·니·반·메·흠)











<sup>33</sup> 마곡사 <괘불화>의 본존 광배에는 육자대명진언이 기록되어 있어 다른 불화들과 기록 위치에 차이가 있다.


<sup>34</sup> 1705년 용문사 <괘불화>는 화면 좌우로 「삼실지단석」조에 해당되는 준제구성범자,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 불보살점팔방 팔안, 열금강왕여래 모두 기록되었다. 그 중 출실지 ‘아, 라, 바, 자, 다’ 중 ‘자’가 생략되었고 불보살점팔방 팔안은 두 번 반복되었다. 하지만 용문사 <괘불화>에 기록된 진언의 서체는 전체적으로 변형과 장식적이 요소가 많아 열금강왕여래에 해당하는 범자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sup>35</sup> 1745년 부석사 <괘불화>의 상단에 기록된 진언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어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sup>36</sup> 1749년 광덕사 <괘불화>는 진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형의 황색을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1699년 桐華寺 〈阿彌陀說法圖〉	秘密悉地	 (암·밤·람·함·감)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1705년 龍門寺 〈괘불화〉	秘密悉地	 (암·밤·람·함·감)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准提 九聖梵字	 정상(옴)·눈(자)·목(레)·가슴(주)·어깨(레)·배꼽(쥬)·겨드랑이(제)· 다리(스바)·발(하)
	佛菩薩點 筆方八眼	 정상(옴)·입(아)·가슴(흠)·눈아래(감)·눈동자(함)·눈위(람)·눈썸(밤)· 미간(암)
列金剛王 如來	 廬舍那佛(상)·阿彌陀佛(릭)·金輪王如來(악)·釋迦如來(남)·藥師如來 (부)·光網菩薩(아)·文殊菩薩(참)·普賢菩薩(밤)·日精菩薩(작)·月精菩薩 (잡)·金剛藏菩薩(바)·精進菩薩(빙)·出現知菩薩(영)·慈惠菩薩(아)·堅固 力菩薩(악)·□·觀世音菩薩(사)·大勢至菩薩(삼)·寶印手菩薩(함)·地藏菩薩 (마심)	
1745년 浮石寺 〈괘불화〉	秘密悉地	 (암·밤·람·함·감)

1745년 浮石寺 〈괘불화〉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列金剛王 如來	 普賢菩薩(밤)·日精菩薩(작)·金剛藏菩薩(바)·文殊菩薩(잠)·月精菩薩(잠)· 釋迦如來(밤)·盧舍那佛(상)·虛空藏菩薩(잠)·阿彌陀佛(헝릭)·藥師如來 (부)·彌勒如來(릭)·慈惠菩薩(아)·精進菩薩(빙)·出現知菩薩(잉)·光網菩 薩(아)·堅固力菩薩(약)·金剛鎖菩薩(람)·寶印手菩薩(함)
1749년 廣德寺 〈괘불화〉	秘密悉地	 (아·바·라·하·카)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1764년 莊陵寺 〈석가설법도〉	秘密悉地	 (아·바·라·하·카)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1769년 佛國寺 〈釋迦說法圖〉	准提 九聖梵字	 정상(움)·눈(자)·목(레)·가슴(주)·어깨(레)·배꼽(준)·커드랑이(계)· 다리(스바)·발(하)

1770년 高方寺 〈神衆圖〉	准提 九聖梵字	 다리(스바)·겨드랑이(제)·배꼽(준)·어깨(레)·가슴(주)·목(레)·눈(자)· 정상(옴)
1776년 泉隱寺 〈아미타설법도〉	准提 九聖梵字	 정상(옴)·눈(자)·목(레)·가슴(주)·어깨(레)·배꼽(준)·겨드랑이(제)· 다리(스바)·발(하)
1790년 南長寺 〈십육나한도〉	秘密悉地	 (암·밤·람·함·감)
	入悉地	 (아·바·라·하·카)
	出悉地	 (아·라·바·자·나)

「삼실지단석」조의 진언 중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은 1699년 동화사 〈아미타설법도〉<sup>37</sup>, 1749년 광덕사 〈괘불화〉, 1764년 장륙사 〈석가설법도〉<sup>38</sup>에서 살피지는 것과 같이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의 삼실진언이다. 준제구성법자는 점안과 관련하여 불보살상에 직접 기록되기도 하지만 1769년 불국사 〈석가설법도〉, 1770년 고방사 〈신중탱화〉<sup>39</sup>, 1776년 천은사 〈아미타설법도〉, 1790년 남장사 〈십육나한도〉는 화면 상단에 기록되기도 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이 불화에 기록된 진언들은 『조상경』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와 「묘길상대교왕경」조, 「삼실지단석」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식 순서에 따라 복장물을 안립하면서 염송되는 진언들이다. 각각의 진언들은 하나의 복장물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보살상에서 발견되는 복장물과 동일한 의미가 내재된다. 복장물을 불보살

<sup>37</sup> 1699년 동화사 〈아미타설법도〉는 3쪽으로 분리된 각각의 화면 상단에서 진언이 확인되는데, 중앙 화면에는 비밀실지, 향우측 화면 상단에는 입실지, 향좌측 화면 상단에는 출실지가 기록되었다.

<sup>38</sup> 1764년 장륙사 〈석가설법도〉는 화면 좌우에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가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sup>39</sup> 고방사 〈신중탱화〉는 「삼실지단석」조 준제구성법자의 기술 순서와 동일하게 ‘하·스바·제·준·레·주·레·자·옴’의 순서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불화들은 ‘옴’자를 시작으로 ‘하’를 마지막으로 기록하였다.

<sup>40</sup> 준제구성법자는 1855년 문수사 〈칠성도〉의 배면에도 주서되었는데, 이와 같이 불화의 배면에 진언을 기록하는 것은 운흥사 〈괘불화〉, 보경사 〈괘불화〉 등을 비롯한 여러 불화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불화 배면은 보수 시 대부분 교체되기 때문에 진언의 종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 안에 안립함으로써 신앙의 대상으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언을 불화에 직접 기록하는 것 또한 동일선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삼실지단석」조의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의 삼실진언이 모든 불화에 기록된 것은 그 자체가 像의 생명력을 부여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언들은 불복장 의식을 담고 있는 『조상경』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범자와 진언을 통해 본 복장의 의미

### 1. 『조상경』에 내재된 범자와 진언의 의미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은 『조상경』에 기초한다. 의겸의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는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에서 각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 범자와 동일하며, 점안의식에 해당된다. 불화 가장자리에 기록된 진언은 복장물 자체를 의미하는 진언, 오방위를 상징하는 오보병과 그 안에 여러 불복장물을 안립하면서 염송되는 진언들로 이는 불복장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복장소입제색」조, 복장물을 안립하는 순서와 의식을 기록한 「묘길상대교왕경」조, 「삼실지단석」조에 해당된다.

범자와 진언은 『조상경』에 열거된 여러 圖解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삼실지단석」조의 입실지, 출실지를 도해하면 入悉地圖, 出悉地圖가 되고,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오륜종자와 진심종자도 동일하다. 열금강왕여래는 列金剛地方之圖로 도해되며, 「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大明觀想儀」조의 八葉大紅蓮華曼拏羅八葉位分布觀想大明王文字와 復於蓮花內圍分布八位를 함께 도안화 하면 八葉大紅蓮之圖가 된다.<sup>41</sup>

준제구성범자는 准提九字圖로 도해되는데(도 17), 개암사 <괘불화>에 기록된 범자 중 석가모니불은 정상계주에 ‘옴’자를 기록한 후 그 밑으로 총 8자의 범자가 기록되었다(도 18). 관음보살의 보관 아래도 ‘옴’자 좌우로 총 9자의 범자가 확인되며, 석가모니불의 범

<sup>41</sup> 『造像經』, 「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大明觀想儀」條, 1824년 楡岾寺板.

「불설불모반야바라밀다대명관상의」조에는 佛母般若波羅蜜多大明文字를 관상하고자할 때에 진실한 마음에서 팔엽대홍련화를 관상하여 만다라를 이루며, 각각의 진언범자들이 팔엽의 위치에 분포하는데, 이때에는 각각의 방위가 연화에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復次 修瑜伽行者 若欲觀想此佛母般若波羅蜜多大明文字 應當諦誠 於自心上 觀想八葉大紅蓮華成曼拏羅 於八葉位分布 觀想大明文字 是諸文字各於方位 不相間雜於蓮華’

准提九聖梵字義解  
 准安兩足 謂字一切法無因無果也解云阿  
 是如來總攝門總觀之時無先後後後若非本亦非  
 末由是名爲總觀無果  
 准安兩腋 決諸字一切法平等無言說義也  
 解云空虛是如來大定門大定無相本無名無相  
 絕比論由是名爲無言說  
 准安兩腋 謂字一切法無取無捨也解云提  
 是如來沒量門沒量之心無善惡善惡時無差  
 別由是名爲無取捨  
 准安臍中 准字一切法無等義也解云准是如  
 來通量門有何分別等正中平等等心本無計  
 由是名爲無等覺  
 准安兩眉 准字一切法無無所礙也解云雙是  
 如來本智門本智之心無新舊心無新舊不見復  
 由是名爲無礙  
 准安髮心 准字一切法無生無滅也解云法  
 是如來空門此彼虛空不動轉無動之心無增  
 減由是名爲無生無滅  
 准安髮頭 准字一切法無相無所得義也解云  
 是如來法門三身亦滅同虛空虛空自性無  
 分別由是名爲無所得  
 准安兩眼 左字一切法不生不滅也解云左  
 是如來妙覺門三身清淨如生先光明寂照無生  
 滅是名爲不生不滅  
 准安頂上 准字三身意亦一切法不生不滅也  
 解云唯字是如來相智門三身圓理理事清淨也  
 至俱無起滅由是名爲不生  
 准安兩後須念各眼一百八道  
 准安兩後須念各眼一百八道



准提九字圖

도 17 『造像經』, 『三悉地壇釋』條, 准提九聖梵字·准提九字圖, 1824년 유점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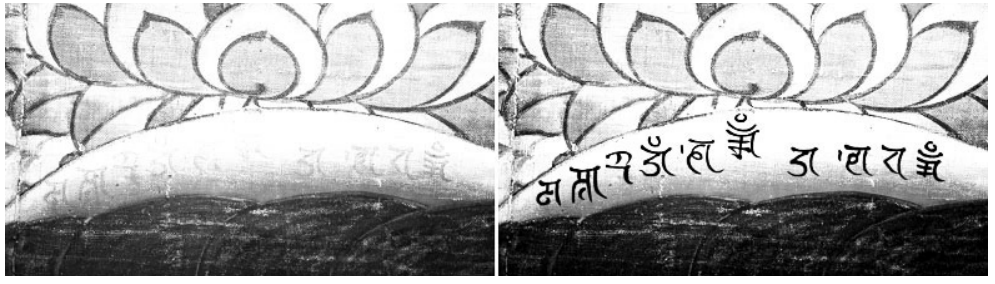
도 18 좌-개암사 <괘불화> 석가모니불 정상계주의 准提九聖梵字 기록, 1749년, 麻本彩色, 개암사(신용철 제공)  
 우-주서된 准提九聖梵字의 자형을 흑색과 백색으로 편집 수록

자와 동일하다(도 19). 이 두 곳의 범자는 준제 구성범자에 기록된 ‘하, 스바, 제, 준, 레, 주, 레, 자, 움’자를 역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진언의 기록은 1753년 선암사 <괘불화>의 <복장낭> 안에서도 발견되었다. 『조상경』의 도해와 동일한 오류종자도, 출실지도, 입실지도, 진심종자도를 중앙에 배치하고 우측에 육자대명진언, 그리고 좌측에 8자의 범자가 원 안에 표기되었다(도 20). 준제구성범자의 9자 중 ‘움’자를 뺀 나머지가 역순으로 판각<sup>42</sup>된 것으로 불화 사방 가장자리와 불보살상에 직접 기록되는 준제구성범자가 복장물로 안립된 것이다. 또한 1926년 통도사 <십육나한도>와 같이 준제구성범자와 사방주를 함께 기록하면 准提九字天圓之圖가 된다.

『조상경』의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는 정상, 눈동자, 심장의 범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정상의 ‘움’자는 32길상의 하나로서

모든 법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이며, 지혜를 상징한다. 눈은 모든 진리를 보는 곳이며, 가슴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삼실지단석」조 唵啊吽義解에서 정상의 ‘움’자, 입속의 ‘야’자,

<sup>42</sup> 1753년 선암사 <괘불화>의 복장이 이루어질 당시 새로운 판을 제작하여 인경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복장물의 목판은 현재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영숙, 앞의 논문, p. 885. 참조.



도 19 좌·개암사 <괘불화> 관세음보살 보관 아래의 准提九聖梵字 기록, 1749년, 麻本彩色, 개암사(김수영 제공)  
우-주서된 准提九聖梵字의 자형을 흑색으로 편집 수록



도 20 선암사 괘불 <種字>, 1753년, 紙, 선암사  
성보박물관(이영숙, 『仙巖寺 掛佛과 腹藏  
囊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1호, p. 895)

가슴의 ‘흠’자에 대해 움아흠을 통해 온 우주의 모든 지혜와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범자 자체가 곧 ‘사리’라고 언급하였다.<sup>43</sup> 이는 불화에 범자를 기록하는 것은 모든 이치와 지혜의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리를 봉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보살점필방 팔안에는 부처님이 도를 이루는 다섯 눈인 五眼이 포함되었다.<sup>44</sup> 오안을 갖춘 佛은 정상 ‘움’의 無盡眼을 통해 다함이 없는 눈을 가짐으로써 모든 진리를 보게

<sup>43</sup> 『造像經』, 『三悉地壇釋』條, 唵啊吽義解, 1824년 유점사판.

‘頂上の 움자는菩提가 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입속의 아자는 生滅하지 않는 般若이며, 가슴 속의 흠자는 四六法界를 관하는 것이다. 또 움자는 百萬의 乾坤을 일시에 삼키는 것이며, 아자는 山河大地 森羅萬像 萬行의 깨달음이며, 흠자는 한 생각도 동하지 않아 근원으로 돌이켜 자기 집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또 사람마다 범자를 알지 못하고 한자만을 옳다고 여긴다면 外道人이다. 범자는 글자마다 점점이 舍利이다. 때문에 범자를 배워 한글과 같이 일일이 받들어 행함이 옳을 것이다.’

‘頂上 唵字則菩提不動也 口中 啊字則不生般若也 胸中 吽字則觀四六法界也 又 唵字則百萬乾坤一時吞也 啊字則山河大地萬像森羅萬行覺也 吽字則一念不動還源之到家也 又云 人人不知梵字 漢字始得 是外道人也 梵字者 字字點點 皆舍利也 故可學梵書 如諺一一奉行始得矣’

<sup>44</sup> 눈 아래 ‘감’자는 肉眼으로 肉身에 갖춰진 眼球, 눈동자 ‘함’자는 天眼으로 遠近·前後·上下·晝夜를 자재로 볼 수 있는 눈, 눈 위 ‘람’자는 慧眼으로 모든 執着과 差別을 떠나 眞理를 밝히 보는 눈, 눈썹 ‘밤’자는 法眼으로 모든 법을 分明하게 觀察하는 눈, 미간 ‘암’자는 佛眼으로 모든 事物의 참모습을 보는 눈이다.

된다. 남장사 소장 『佛事成功錄』<sup>45</sup>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무진안은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러 이를 통해 내포된 변하지 않는 진리, 자신의 佛性, 곧 법(dharma)의 원리까지 깨우치는<sup>46</sup> 것을 말한다. 또한 『조상경』에는 준제구성범자 9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sup>47</sup> 각각의 범자를 기록함으로써 육신의 눈에서 마지막 정상인 ‘옴’자에 이르러 三身이 되고 무진안에 들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실지단석」조의 출실지, 입실지, 비밀실지의 삼실진언은 의식단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것<sup>48</sup>으로 출실지는 化身, 입실지는 報身, 비밀실지는 法身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언에 내포된 법을 통해 佛이 탄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陀羅尼法』에 의하면 출실지는 발에서 허리까지이고 입실지는 배꼽에서 심장까지이며,

<sup>45</sup> 『佛事成功錄』에는 「南長寺掛佛新畫成記」, 「掛佛腹藏願文」, 「幽冥教主地藏大聖新畫成腹藏願文」, 「佛事錢穀雜物等入記」, 「緣化秩」 등이 실려 있으며, 그 중 「南長寺掛佛新畫成記」를 살펴보면 다음의 기록이 있다. 『佛事成功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윤, 「『佛事成功錄』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통도사 성보박물관, 2001), 참조.

‘當時 名德大宗師 南嶽峽悟 括虛取如 敷座入定 明觀正證 各出點筆之妙用 成就無盡眼 與法界怨親 同就釋迦老子 肚裏乾坤 轉入毘盧藏海 逍遙於法法全眞之岸 且道 法身是耶 化身是耶 不離化身 薦取法身 則法身化身亦是 人人分上 爲甚 麼長淪生死 而昧○自己法身 大須着眼’

<sup>46</sup> 이용윤, 앞의 논문, p. 5. 참조.

<sup>47</sup> 准提九聖梵字에 해당되는 범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위치		범자	의미	세부의미(해석)
발	하	라	絶證門	일체법이 인도 없고 果도 없다. (시간적으로 앞도 뒤도 없으며, 般若는 本(근본)도 末도 아니다.)
다리	스바	바	大定門	일체법이 평등하여 言說이 없다. (大定은 모양이 없다. 본래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다.)
겨드랑이	제	자	沒量門	일체법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한량이 없는 마음엔 선악이 없고 이때 차별이 없기 때문에 取捨가 없다.)
배꼽	준	차	過量門	일체법이 無等하다.(마음에 본래 헤아림이 없다.)
어깨	레	야	本靜門	일체법에 더러운 때가 없다.(본래 고요한 마음에 새삼스럽게 고요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뒤를 보지 않는다.)
심장	주	유	至靜門	일체법에 생도 없고 滅도 없다.(허공은 움직이거나 轉하지 않듯이 동함이 없는 마음엔 늘고 줄어들어도 없다.)
목	레	리	盡相門	일체법의 모양도 없고 연을 바도 없다. (三身이 길이 멀하여 허공과 같으니 허공의 自性은 분별이 없다.)
눈동자	자	리	妙覺門	일체법이 생도 아니고 滅도 아니다.(三身이 청정하여 생전의 光名이 고요히 비추고 生滅이 없음과 같은 不生不滅이다.)
정상	옴	음	極善門	三身의 뜻이고 일체법이 본래 生하지 않는다. (三身이 원만하여 理事가 맑고 空色이 진실하여 起滅이 없다.)

<sup>48</sup> 태경스님,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운주사, 2006. 3), p. 59.

비밀실지는 심장에서 정수리까지를 가리킨다.<sup>49</sup> 이는 삼실진언이 상징하는 신체의 위치를 설명한 것으로 상호와 신체에 해당되는 범자를 나열한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에 해당되며, 점안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처럼 범자와 진언은 오보병, 오곡, 오약, 오보, 오산개, 후령통, 도해 등 불보살상 내부에서 발견되는 모든 物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다. 유점사판의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에 의하면, 物, 事, 理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事に 해당하는 物을 불상의 내부에 안립함으로써 理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sup>50</sup> 이는 복장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복장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장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sup>51</sup>

따라서 범자와 진언들이 불보살상에 직접 기록되거나 불화의 가장자리에 기록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장물, 또는 불복장의식과 동일한 상징성을 갖는다. 불보살상 내부에 복장물을 안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화에 복장물과 불복장의식과 관련된 진언과 범자를 기록함으로써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 불보살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 2. 의식집의 간행과 범자와 진언의 기록

의검이 제작한 <괘불화> 4점을 비롯하여 (표 4)를 참고해 보면, 주로 17세기~18세기에 제작된 불화에서 범자와 진언이 확인된다. 17~18세기는 1569년 安心寺板 『諸眞言集』과 더

<sup>49</sup> 김영덕, 앞의 논문, pp. 159~160.

‘출실지는 발에서 허리까지이고 입실지는 배꼽에서 심장까지이며, 비밀실지는 심장에서 정수리까지이다. 출실지는 화신의 성취이고, 입실지는 보신의 성취이며, 비밀실지와 소실지는 법신의 성취이다.’

‘出悉地從足至腰 入悉地從臍至心 秘密悉地從心至頂 如是三悉地 出悉地化身成就 入悉地報身成就 秘密悉地蘇悉地法身成就’

<sup>50</sup> 『造像經』, 「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楡岾寺板.

‘대저 物이란 것은 事이다. 易에서 말하길 ‘통하고 변함을 事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통하고 변하는 것은 理이며, 事가 행하는 곳엔 理는 본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事는 理를 얻어 융합하고 理는 事를 따라 변한다. 오직 絶待靈知인 마음과 法身向上의 이치 외에 천하에 事를 버리고 홀로 존재하는 理나 理를 버리고 스스로 이루는 事가 어찌 있겠는가. 대개 불상을 시설하는 법이 事에 지나치게 가까운 듯도 하나 가운데에는 스스로 理가 있어 事門에 두루하고 事는 理門에 두루하는 것이다.’

‘夫物者事也 易曰通變之謂事 所以爲通變者理也 事之行處 理固存也 故 事得理融 理隨事變 唯除靈知絶得之心 法身向上之理外 天下豈有棄事獨存之理 沒理自成之事也 凡所以像設之法太近於事 然更那裏自有理 偏於事門 事偏於理門也.’

<sup>51</sup>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과 직물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39.

불어 1634년 腹龍寺板『靈山大會作法節次』, 1660년 護國寺板『五種梵音集』, 1784년 雙溪寺 修道菴板『密教開刊集』 등을 비롯하여 불복장의 기본서인 『조상경』과 같은 의식집이 많이 판각된 시기이다. 이는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이 의식집의 간행과 영향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도 『조상경』이 많은 간행된 17~18세기에 불보살상의 복장도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불화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18세기에 제작된 불화 중 특히 법당 안에 봉안되는 불화에 비하여 <괘불화>에 범자와 진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괘불화>가 야외에서 의식을 주재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어 작법의식과 더욱 밀접할 뿐만 아니라 <괘불화> 자체가 불보살상을 대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17세기~18세기 불화, 그 중에서도 범자와 진언이 <괘불화>에 많이 기록되는 것은 의식집과 『조상경』의 간행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전 시대의 불화와 다른 새로운 모습이라 하겠다. 더욱 의점의 <괘불화>에서 점안과 관련된 범자들이 확인되는 것은 의점이 『오종범음집』과 같은 의식집에서 도상을 채용하여 석가모니불 중심의 영산회괘불화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점안에 대한 인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거한 의식집 중에서도 1569년 안심사판 『제진언집』, 1784년 쌍계사 수도암판 『밀교개간집』, 그리고 1824년 유점사판 『조상경』은 「점안문제진언」조가 포함되어 있다. 開眼光明眞言, 安佛眼眞言, 安佛眞言, 安莊嚴眞言과 더불어 三十二像眞言, 八十種好眞言이 부가되었다. 이는 범자를 기록하고 이 진언들을 염송하면 상은 32상 80종호를 갖춘 완벽한 佛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범자와 진언이 불보살상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物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VI. 맺음말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을 『조상경』과의 비교를 통해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범자는 의점이 제작한 4점의 <괘불화>에서 확인되었다. 불보살상의 정상, 상호, 신체에 대부분 채색되기 전 주서되어 <괘불화>의 구성과 더불어 범자는 사전 계획에 의한 특정 목적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범자는 『조상경』 「삼십지단석」조의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에 해당되며, 정상, 눈동자, 가슴의 범자를 강조한 것도 동일하다. 이러한 범자는 점안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의점이 당시 점안의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을 간

접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1476년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도>의 아미타불 가슴에서도 주서된 ‘흙’자가 확인되어 『조상경』과 유사한 경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불화의 사방 가장자리에 기록된 진언은 불복장물과 그 의미를 기록한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 불복장의식의 순서에 따라 복장물을 안립하면서 염송되는 진언을 기록한 「묘길상대교왕경」조, 의식단인 「삼실지단석」조가 서로 혼용되거나 「삼실지단석」조에 해당되는 진언만을 기록하는 등 모두 『조상경』과 관련된다.

범자와 진언은 주로 17~18세기 불화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조상경』 등의 불교와 관련된 의식집이 다량으로 간행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 제작된 여러 <괘불화>에 범자와 진언이 집중되는 것은 실제 불교 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 안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존재하여 법당 안에 봉안하는 다른 불화에 비하여 작법의식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은 점안의식과 불복장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불보살상에 복장물을 안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화에는 진언을 기록하여 복장물을 대신하고, 법당 안에 봉안하기 전 불보살상에 점안 의식을 행하 듯 불화의 불보살상에 직접 범자를 기록함으로써 점안의식을 봉행하는 것이다.

『조상경』의 「삼실지단석」조에는 범자를 곧 ‘사리’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범자를 기록하는 것이 사리를 봉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像에 사리와 함께 심장인 후령통을 봉안하여 종교와 예배의 대상인 佛로 탄생되듯 불화에 범자와 진언을 기록함으로써 像은 32상 80종호를 갖춘 佛로 완성되며, 이를 통해 불보살상에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화의 복장물 안립방법과 다른 형식이지만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은 『조상경』에 바탕을 둔 불화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또다른 형식의 불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_불복장(佛腹藏, storage of offerings in the Buddha's body), 점안(點眼, eye opening), 조상경(造像經, *Josanggyeong* (The Buddhist Canon of Iconography)), 의식집(儀式集, manual of rites and ceremonies), 괘불화(掛佛畫, Buddhist hanging scroll), 의겸(義謙, *Uigyeom*), 진언(眞言, mantra), 범자(梵字, Sanskrit script)

■ 투고일 2012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3년 3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21일 ■

## 참고문헌

- 『造像經』龍泉寺板, 1575.  
『造像經』楞伽寺板, 1697.  
『造像經』華莊寺板, 1720.  
『造像經』金龍寺板, 1746.  
『造像經』楡岾寺板, 1824.  
『造像經』필사본, 조선후기.  
『諸眞言集』安心寺板, 1569.  
『靈山大會作法節次』腹龍寺板, 1634.  
『五種梵音集』護國寺板, 1660.  
『密教開刊集』雙溪寺 修道菴板, 1784.
-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1~40.  
온양민속박물관,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の 調査研究』, 계몽사, 1991.  
수덕사 근역성보관, 『至心歸命禮 - 韓國의 佛腹藏』, 2004.  
고경스님 校勘, 송천스님·이중수·허상호·김정민 編著, 『韓國의 佛畫 畫記集』,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태경스님,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 운주사, 2006.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 해인행, 2008.
- 강영철, 「조선후기 준제보살 연구-불교문헌과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회당학보』 제9집, 회당학회, 2004, pp. 301-323.  
김영덕,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陀羅尼法」, 『불교원전연구』 12호, 불교문화연구원, 2010, pp. 132-169.  
박은경, 「고려불화의 변죽-本地, 畫幅, 그리고 奉安에 대한 試論-」, 『동아시아 불교회화와 고려불화』 제3회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미술 심포지엄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10.  
박일웅, 「天安 廣德寺 掛佛幀」,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18,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8.  
신광희, 「扶安 開巖寺 掛佛畫」,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4, 통도사 성보박물관, 2011.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안귀숙,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연구 上」 『미술사연구』 8, 미술사연구회, 1994, pp. 63-138.

- \_\_\_\_\_,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연구 下」 『미술사연구』 9, 미술사연구회, 1995, pp. 153-201.
- 유지원, 「朝鮮後期 畫師 義謙의 佛畫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선용, 「佛腹藏 구성형식과 직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 261, 한국미술사학회, 2009, pp. 77-104.
- 이영숙, 「仙巖寺 掛佛과 腹藏囊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 21호, 한국문화사학회, 2004, pp. 875-901.
- 이용윤, 「『佛事成功錄』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6,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1.
- 이은희, 「雲興寺와 畫師 義謙에 관한 考察」, 『文化財』 24, 국립문화재연구소, 1991, pp. 195-211.
- 이종수, 「靑銅腹藏囊의 新例-發願文 내용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69호, 국립중앙박물관, 2002, pp.133-142.
- 정명희, 「靑谷寺 掛佛幀과 『五種梵音集』」,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10, 통도사성보박물관, 2003.
- \_\_\_\_\_,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的 변용」, 『불교미술사학』 제 2집, 불교미술사학회, 2004, pp. 5-28.
- \_\_\_\_\_, 「舉佛절차와 降臨의 시각화-來蘇寺 掛佛과 畫僧 天信-」,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3, 통도사 성보박물관, 2010.
- \_\_\_\_\_, 「1673년 靑陽 長谷寺 掛佛 研究」,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6, 통도사 성보박물관, 2012.

## 국문초록

〈괘불화〉를 비롯한 여러 불화에 서 범자와 진언이 확인되지만 지금까지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 않았다. 이에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을 『造像經』과의 비교를 통해 불화 복장의 새로운 형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의겸이 제작한 〈괘불화〉의 불보살상에서는 정상, 상호,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범자가 확인된다. 특히 모든 법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로 지혜를 상징하는 정상, 모든 진리를 보는 눈, 생명력을 상징 가슴의 범자가 강조되어 있는데, 『조상경』의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를 기록한 것이다. 불보살점필방 팔안과 준제구성범자는 점안과 관련된 범자이며, 불화에 직접 기록함으로써 점안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의겸이 이러한 의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불화의 사방 가장자리에서도 진언이 확인되는데, 모두 복장의 방위에 따른 물목과 그 의미 등을 담고 있는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 복장물을 안립하면서 염송되는 「묘길상대교왕경」, 그리고 「삼실지단석」조의 진언과 동일하다. 즉, 복장물을 상징하는 범자와 함께 불복장의식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염송되는 진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불복장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자와 진언의 기록은 진언집과 『조상경』 등 의식집이 많이 간행된 17~18세기 불화에 많이 나타난다. 특히 〈괘불화〉에서 범자와 진언이 많이 확인되는 것은 법당 안에 봉안하는 다른 불화에 비하여 〈괘불화〉가 의식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불화에 기록되는 범자와 진언은 불복장물로 안립되는 오보병, 오곡, 오약, 오보, 오산개, 후령통, 도해 등의 모든 物과 동일하며, 『조상경』에 기초한다. 따라서 범자와 진언들이 불보살상에 직접 기록되거나 불화의 가장자리에 기록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장물과 불복장의식, 그리고 점안의식과 동일한 상징성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불보살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상경』의 「삼실지단석」조에서 범자를 곧 ‘사리’라고 기록한 것처럼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은 사리를 봉안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사리와 함께 심장인 후령통을 봉안하여 像이 종교와 예배의 대상인 佛로 탄생되듯 불화에 범자와 진언을 기록함으로써 불보살상에 생명력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은 불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Abstract

# A Study of Sanskrit Scripts and Mantras in Buddhist Paintings

Lee Seon Yong \*

This study focuses on various Sanskrit scripts and mantras contained in various Buddhist paintings, including hanging scrolls and, in particular, the new forms and meanings of the religious paintings stored within the body of Buddha's statue by comparing the scripts and mantras with *Josanggyeong* (造像經, The Buddhist Canon of Iconography).

Buddhas and bodhisattvas depicted on the hanging scrolls made by *Uigyeom* (義謙) contain Sanskrit scripts in many parts of their images, the head, eyes, and breast in particular. The scripts are connected with the ceremony of opening the eyes of a Buddha or bodhisattva as provided by the records on the eight eyes of *Bulbosal-Jeompilbang* (佛菩薩點筆方 八眼) and *Junjeguseong-Beomja* (准提九聖梵字) in *Josanggyeong*. The painting also reveals along its edges the mantras which are the same as those contained in the canon's three chapters, “*Jebulbosal-Bokjangdan-Uisi* (諸佛菩薩腹藏壇儀式),” “*Myogilsang-Daegyowanggyeon* (妙吉祥大教王經)” and “*Samsiljidanseok* (三悉地檀釋)” focused on the ceremony of storing offerings in the body of a Buddhist statue.

The inscription of Sanskrit scripts and mantras on Buddhist paintings was conducted widely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during which the publication of mantra anthologies and manuals of Buddhist rites and ceremonies was also widespread. The tradition of inscribing Sanskrit scripts and mantras on the Buddhist hanging scrolls seems to have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ritual dances performed before the scroll as part of a Buddhist prayer service.

As clearly stated in the chapter “*Samsiljidanseok*” of *Josanggyeong*, the action of inscribing Sanskrit scripts and mantras on a Buddhist painting meant enshrining “the

---

\* Dongguk University

sarira of the Buddha”. In short, it was a symbolic religious performance comparable to the ceremony of storing offering in the body of a Buddhist statue or the eye opening ceremony performed to give life to the manmade object.